



협상의 최전선 '공포의 외인부대'

세계는 FTA 전쟁 | FTA국
올해 초 외교부에서 FTA국 신설
기업 · 연구소 · 법조계 등 이례적으로
외부 전문가 포진

출입증을 받고 엘리베이터에 서 내리면 출입통제용 유리문이 있어 다시 확인을 거쳐야 하는 다른 층과는 다르다. 자리를 구분하는 칸막이도 가슴 높이 정도다. 책 · 자료 더미와 문서 캐비닛 등으로 막혀 있어 일어서도 얼굴을 겨우 볼 수 있는 다른 부처 사무실과는 영 판판이다.

대외개방을 앞서서 지향하는 FTA국은 사무실 모습도 개방

을 상징하고 있다. FTA국은 한국의 FTA 협상 최전선에서 뛰는 야전 사령탑이다. 20여개국과의 동시다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올해 초 신설됐다.

FTA국 직원 32명 중 외교통상부 출신은 김한수(51) 국장 등 8명에 불과하다. 외무고시 출신의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교통상부로서는 이례적인 조직이다. 타 부서 출신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 연

구소 · 법조계 출신이 섞여 있다. 협상 분야가 워낙 방대한 데다 전문적인 협상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외인부대'로 구성된 것. 조문을 중시하는 국제협상의 관례상 국내 · 외의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도 9명에 달한다.

FTA국의 총괄보좌관격인 이태호(45) 심의관은 통상분야에서만 20여년간 일했다. 외교통상부에선 최고의 통상맨으로 평가된다. 주무과인 자유무역협정정책과 유명희(여 · 37) 과장은 외교통상부 내 최연소 과장이다. 외교통상부 과장급이 대개 1986~1988년에 들어온 외무고시 20~22기 출신인 데 반해 유 과장은 행정고시 35회(외시 26회에 해당) 출신이다. 유 과장은 총무처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 통상산업부를 거쳐 통상교섭본부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뉴욕주와 워싱턴DC의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있다. 김종범(42) 지역무역협정상품교섭과장은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박사, 듀크대 법학박사이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신이다. 안근영(45) 서비스교섭과장은



▲ 왼쪽부터 김종범, 이제욱, 이지형, 유명희, 안세령, 안근영씨

정보통신부에서 자리를 옮겼다. 미국 듀크대 공학박사로 전자통신연구소에서도 근무했다. 4명의 과장 중 김영무(41) 지역교섭과장만 정통 외무관료 출신.

직원들의 경력도 다채롭다. 서비스교섭과 이제욱(34) 사무관은 삼성전자 출신으로 공모에서 뽑혔다. 중남미 시장에서 휴대전화기를 팔던 그는 중남미에서 FTA 체결 실적이 저조해 한국 기업이 차별당하는 것을 보고 지원했다. 지역교섭과

안세령(여·34)씨는 외무고시 합격 후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온 열성파. 같은 과 이지형(여·30)씨는 사법고시 출신이다.

FTA국은 조직 운용도 개방을 지향한다. 사안에 따라 여러 과에서 팀원을 모아 수시로 팀을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김한수 국장은 "일반적인 관료 조직과는 달리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므로 동시에 많은 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FTA국은 외로운 사령

탑이기도 하다. 농민단체·업계·노조 등 여러 이해집단과 다른 정부 부처와의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집단의 이해를 100% 만족시킨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어느 한 쪽의 입장만 대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학계 일부에선 협상 내용이 새어나갈 것을 우려한 정부와 업계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협상팀이 고립된다는 비판도 있다. ●